

## 정보통신부 장관 취임사



친애하는 우리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니까 마음이 푸근하지만, 이번에 제가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고 보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발전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의 이런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의 많은 열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퇴임하신 전임 양 승택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식정보사회 건설에 힘써 온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 속의 『IT Korea』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국내·외 모두에서 『IT월드컵』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4강의 신화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첨단 IT기술에 전 세계가 놀라고 인정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IT강국을 넘어서 IT선진국 아니, IT선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외신들이 『세계 정보 통신의 미래는 한국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하는 IT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10년 나아가 20년간 우리나라의 명운



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통신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에게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갖고 직무에 임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실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IT 산업은 지난 4년간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 발전의 성장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직원간 화합의 정신을 정보통신부가 오랜 전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상호간에 깊은 이해를 통하여, 이 직장을 더욱 보람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신노동조합과는 지금까지의 긴밀한 유대로 노사화합을 이루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보람 있으면서도 즐거운 직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앞으로 업무를 함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취임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